

##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? 🐼

먼저 할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할례에 대해 잠시 설명하면요, 남자 생식기의 껍질을 베어내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친구가 궁금해하는 할례를 난지 8일에 행하라는 성경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?  
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.

“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.  
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.  
너희는 양피를 베어라.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.  
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.”

하나님께서는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,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

왜 난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셨을까?  
놀랍게도 현대 생물학에서 혈액의 응고과정이 밝혀지면서 생후 8일에 가장 응고가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.  
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, 우리 몸이 상처를 입게 되면 혈소판에서 분비된 물질에 의해 응고효소인 트롬빈이란 물질이 프로트롬빈의 활성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, 이 프로트롬빈이란 물질의 농도가 생후 3일된 아이는 성인의 30%에 불과하지만 생후 8일에는 성인의 110%로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.  
그리고 그 이후로는 농도가 묽어져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평생을 유지하게 됩니다.  
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례라는 것은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라, 이를 행할 때는 항상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.  
이 때 물론 지혈이 문제가 되죠.  
그리고 특히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할례를 생각할 때, 그 당시에는 병원들도 없었기 때문에 응고가 어려워지면, 출혈이 심해져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.

이 발표이후 하나님께서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.

© 「궁금해?궁금해!」, 한국창조과학회 제공